

# 사 설

강원도민이 염원하던 2018 평창동계 올림픽 유치에 마침내 실현됐다. 지난 10년간의 열정이 만들어낸 쾌거이자, 강원도민의 꿈이 이뤄진 것이다. 많은 도민들이 환영하고 기뻐하고 있으며, 특히 김진선 전 도지사는 누구보다 감격스러웠을 것이다.

평창동계올림픽 유치가 확정된 이후 거의 모든 언론매체들이 앞다퉀 소식을 전하고 있으며, 유치를 축하하는 홍보광고도 잇따르고 있다. 일각에서는 88올림픽에 이어 2002월드컵과 이번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로 스포츠 분야 그랜드 슬램을 달성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평창동계올림픽은 주 개최도시인 평창을 비롯해 빙상경기가 열리는 강릉시 등 인접한 시군은 커다란 발전을 가져올 것이 분명하다. 일각에서는 대회 개최를 위해 투입되는 수십조원의 국도비가 결국 국은 서울의 대형 건설업체들에게 돌아

가고, 행사가 끝난 뒤 유지관리를 위해 매년 수백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는 점 등을 들어 후유증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지만 말이다.

이제, 마음을 가라앉히고 생각해보자. 과연 평창동계올림픽 유치가 우리 고성군에 어떤 이익이 될 것인가. 평창 동계 올림픽은 대한민국과 강원도의 브랜드를

상승시키는 효과가 있을지는 몰라도, 먹고 살기가 힘들어 주민들이 고향을 떠나고 있는 우리 고성군의 발전과는 별로 상관이 없을 것이라는 게 우리의 생각이다.

평창 동계올림픽이 유치된다고 해서 수십년째 잡혀지고 있는 명태가 갑자기 잡힐 리 없으며, 금강산 관광이 재개

되는 것도 아닐 것이며, 고향을 떠나 대도시에서 살고 있는 출향인들이 고향으로 속속 돌아오지도 않을 것이다.

특히 평창 동계올림픽이 열린다고 해서 수년째 잡혀지고 있는 알프스스키장이 재개장되지도 않을 것이며, 진부령 4차선 확포장 공사가 이뤄지지 않을 것이다. 언젠가는 되겠지만, 적어도 평창동계

올림픽 유치 효과로 성사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말이다.

오히려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 개최를 위해 막대한 국도비가 투입되는 동안 우리 고성군은 상대적으로 국도비 수혜를 덜 받을 수밖에 없어 그만큼 발전이 늦어지게 된다. 예산은 바닷물처럼 무한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실제로 4대강

사업 때문에 복지 예산이 크게 줄어든 것과 마찬가지로, 수조원의 국도비가 투입되는 동안 고성군은 그만큼 국도비 예산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따라서 진실을 말하자면, 우리 고성군의 입장에서 보면 평창동계올림픽 유치가 별로 달갑지 않다는 것이다. 어쩌면 평창 동계올림픽 때문에 가뜩이나 늦어지고 있는 국도7호선 4차선 공사가 더욱 늦어질지도 모르고, 당장 내년부터 일자리 사업 규모가 축소될지도 모른다. 이것은 엄연한 사실이다. 그렇다고 평창동계올림픽으로 인해 발생하는 수입의 일부가 고성군으로 유입되는 것도 아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 환영, 이제는 진부령 4차선 개통’ 등의 문구를 내거는 단체는 왜 없을까. 밤늦은 시각 TV를 보다가 평창 유치가 확정되는 순간 김연아처럼 감동의 눈물을 흘렸지만, 현실로 돌아와보니 걱정이 앞선다.

##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와 고성군

우리의 중요한 질서 중 하나인 교통질서는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처럼 또는 전류처럼 높은 전위에서 낮은 전위로 흐르는 것과 같이 자연스럽게 이뤄질 수 있는 규범이 필요하다.

2011년 오늘은 ‘악법도 법이 아니다’는 것이다. 그리고 법 앞에 평등하다는 것도 우리 시대에 살고 있으므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준엄한 심판에 따라 응분의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은 참으로 정당하고 수긍이 간다. 법 생활을 함에 있어서 교통법규뿐 아니라 이미 제 법규정비를 진행하겠지만, 전반적으로 법규정비가 자연스럽게 순조롭게 진행되었으면 하는 것이다.

이르면 8월부터 음주운전 주박이 제한 구역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고 한다. 교통법규 기준속도 40km 과속위반자에 대한 범칙금이 두 배인 18만원으로 증액징수되고,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일 때 또는 기준속도에서 60km 초과된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 하고, 주택지역제한에선 30km로 한다고 한다.

1995~2010년까지 국민총생산(GDP)이 140% 증가했었지만, 현행규범은 20~40km 초과 6만원이고, 60km는 9만원이다. 유럽에선 40km 초과 약 43만원, 일본에선 3만5천엔 약 47만원이니 우리나라가 유럽이나 일본에 비하면 낮다.

2010년 통계에 의하면 교통사고 사망자수가 5천505명이다. 자동차 1만대당 2.86명이다. OECD 회원국 평균 1.25명

## 금강칼럼

김 종 식  
객원논설위원



## 우리 생명과 직결된 교통질서

의 두 배나 된다. 교통사고 사망자수를 줄이는 목표는 하나뿐인 귀중한 생명을 지키는 것으로, 우리가 풀어야 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1회 음주운전에 대해 한번 기회를 줄이, 2회 과속에 대해 각 속도기준 40km로 일정기간 계몽함, 3회 위반할 때 영구적 기준으로 속도고정이 되어야 하는 것이, 마지막 면허취소 해도 불편은 없지 않겠는가. 그래도 사람이 하는 노릇이기에, 그러나 피할 순 없다 하겠다.

따라서 기회를 주어보자는 것이다. 단속규범을 대폭 강화해도 좋다. 위 음주운전 과속 이외 역주행, 중앙선침범, 신호위반, 차선위반, 횡단보도위반, 주차위반 등 교통법규를 철저히 하고도 확실하고 분명하게 각각 책임을 져야 한다.

하지만 기회를 주어 이행되지 않을 때도 결정자에게 재량권을 부여하는 것이 어떠

하겠는가. 분위기를 조절해나가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된다. 질서는 정신적 건전이며 육체의 건강이고 또한 사회의 평온이요, 나아가서 국가 평화며, 국민의 평안이며 행복의 본원이다.

사회변동과 변천이나 사회추세에 따라가지 못한 규범은 양심이 살아 움직이고 있는 금과옥조처럼 제구실을 다하게 되는 것이다. “너는 다른 사람에게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아무 것도 받을 생각이 없다면 그 누구도 두려워할 것이 없다. 그러나 당신의 행복을 자신 힘 속에 구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힘 속에 구한다면 당신은 늘 위협을 받으며 살아갈 것이다”라는 명언은 행복은 자기에게 있는 것이요 어떠한 곳에서도 얻지도 찾을 수도 없다는 말이다.

참된 행복은 자신의 마음에 있고 사회규범의 질서준수도 자신의 자각실천에 있다. 조금한 마음을 누그러뜨리면 얼마나 좋겠

는가. 무질서 속에 혼란과 혼비가 있고 사악이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을 경험하였다. 따라서 과거 현재 미래를 고려해서 제법규의 정비가 절실하다는 것이다.

지혜의 삶 365, 오늘의 건강매아리를 들어본다. 본지 제20호에 이어 계속 호산과 대산에 대한 효능을 알아본다.

27)결핵, 담, 해수, 천식, 호흡곤란, 발한 이러한 증세가 있는 사람은 마늘을 곱랑주나 소주에 담가 두었다가 1회에 소주잔으로 1잔씩 장복하면 효능이 있다. 대산주 담그는 방법 두 가지 방법엔 (1)껍질 벗긴 마늘 1.8kg 곱랑주 6kg을 용기에 넣고 밀봉하여 20일 후 매일 3회 식후 마늘주 1잔과 마늘 3~4쪽을 함께 복용한다. (2)껍질 벗긴 마늘 12g을 찢어 곱랑주 185cc를 병 또는 호로병에 넣어 밀봉하여 1~2개월 담근 후 1일 3회 식후에 한잔씩 복용한다. 술을 못 마시는 사람은 온수를 타서 마신다. 이외 대산주는 각종 해수증을 다스리고 상풍 전신한열동통엔 마늘 술 데워서 혼합하여 마시면 효력이 있고, 불면증에도 효용이 있다. 가정의 상비약으로 준비함이 좋다.

28)비염 축농증엔 마늘을 썰어서 발바닥 중앙에 붙이되 천으로 발바닥을 상하지 않도록 대어야 한다. 29)해식중독엔 마늘과 쌀죽을 끓여 먹으면 식중독이 없어진다. 30)남녀의 음증엔 마늘껍질과 함께 끓여 그물로 씻는다.

### ◇편집국에서

○...동광중학교 1학년 1반 이경임 학생이 우정사업본부가 주최한 제12회 전국 편지쓰기 대회에서 은상을 차지했다는 소식이다. 전국민을 대상으로 공모한 문예대회에서 우리 고성지역 학생이 이처럼 좋은 성적을 보인 것은 참으로 기쁜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이런 소식을 접할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고성군은 비록 인구 3만 인구의 작은 지역에 불과하지만, 장구한 역사만큼 인재가 많다는 것이다. 안타까운 것은 이런 인재들이 성장해 고성발전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어른들이 제대로 뒷받침해주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강원 고성신문 •등록번호 : 강원 다 01183 •등록일 : 2011년 1월20일 •간별 : 주간

•우 219-803 •주소 : 강원도 고성군 간성읍 신안6리3반 247-3  
•편집국 681-1666 •구독·광고 681-1667 •팩스 681-1668

발행·편집인 윤승근 인쇄인 최낙관 편집국장 최광호

•2011년 1월 31일 창간 •구독료 : 한달 4천원, 1년 4만원  
•구독료 납부 : 농협 301-0072-9350-81 / 예금주 : 주식회사 고성신문

※ 본지는 주간신문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